

# 취업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자원, 가정관리능력 및 가정생활만족\*

## The Employed Wives' Objective and Subjective Resources, Home Management Ability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金 慶 淑

교수: 李 貞 珩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ept. of Home Management*

*Kwandong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Kyung Sook, Kim*

*Prof. : Jung Woo, Lee*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원, 가정관리능력, 가정생활만족간의 관계를 체계론적 관점에 따라 분석하고, 각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자원적정인지도, 생활정보활용도 및 의사소통도는 비교적 높고, 스트레스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 2) 취업주부의 연령과 생활정보활용도, 의사소통도가 높을 때 가정관리능력이 높았다.
- 3) 취업주부의 연령이 낮고, 자원적정인지도와 의사소통도가 높고,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 때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 4)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이 높을 때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 5) 각 변인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

### I.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여러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직종의 확대됨으로서 여성의 취업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를 보면, 1987년의 경우 전체 여성중 약 45%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이들 취업여성중의 74.8%가 기혼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주부의 취업이 가

정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취업주부와 관련하여 결혼만족도, 시간사용,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몇 편 진행되어 있다. 그 결과, 취업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기는 했지만 감소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직업과 가사노동을 함께 고려할 때는 오히려 작업시간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전통적 역할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는 특히 가정과 직업이라는 이중 역할을 조화시키며 부족한 생활시간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욕구를 함께 충족시키고 목표들

\* 본 논문은 1993년도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달성하며 가정생활에서의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취업주부는 가정에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전업주부보다 더욱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가정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업주부에 비해 가정활동시간에 제한을 받는 취업주부가 어느 정도의 가정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로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을 느끼는지, 또 이들은 어떠한 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를 체계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주부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원은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둘째, 가정관리능력은 가정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세째, 취업주부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원, 가정관리능력, 가정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정관리능력

가정관리란 가족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힘이며 생명력이다. 따라서 주부는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서의 가정관리능력이 필요하다. Nickell, Rice와 Tucker (1976)는 의식적인 자원의 선택 및 적용을 통해 목표성취를 이루도록 하는 능력을 가정관리능력이라고 하였으며, 酒井(1969 : 33-34)은 가족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원의 사용과 창조에 관련된 목표지향적 행동을 수행하는 힘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정관리능력은 의도적인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서도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능력의 우열은 가족의 목표달성과 만족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에 Nickell과 Dorsey(1967 : 38-38, 100-104)는 지능, 열의, 인간성에 대한 이해, 상상력, 판단력, 인내력, 적응력, 자기관리, 자기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Deacon과 Firebaugh(1981 : 64-65)는 개인의 시간지향성, 독창성 및 창조성, 지적적이거나 개념적

인 예견능력, 정보처리 능력 및 인과적 배열능력과 같은 내외적 통제력등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정우(1980)등은 Gross와 Crandall의 질문지를, 안영희(1978)는 Nickell과 Dorsey의 척도를 이용하여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주부는 약간 높은 정도의 가정관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정기(1976)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는 酒井의 척도를 응용하여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통제능력이 높고 계획능력이 낮으며, 의복과 음식물, 금전에 대한 능력이 높고 지식 및 기능에 대한 능력은 비교적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장명옥(1976), 지금수(1992)등은 계획적, 창의적 교육적, 소비적, 통솔 교육적, 인간관계적, 가사작업적, 평가적 관리행동의 영역에서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계획적 능력이 낮고 인간관계적 능력이 비교적 높다고 하였다.

### 2. 가정생활만족

가정생활 및 결혼의 심리적, 실제적 만족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용어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그 중 적응, 행복, 만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만족에 대하여, Burr(1970)는 개인이 경험하는 목표와 요구의 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조건이 만족이며, 여기에는 객관적 및 주관적 견해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Medley(1976 : 488)는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생활만족도라고 하였고, 김명자(1982)는 생활만족도란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태도로서 이는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에 영향받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임정빈(1988)도 가정생활만족이란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간의 일치에서 느끼는 충족감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는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urr(1970)는 가정생활만족을 재정문제의 처리능력, 사회적 활동, 가사작업의 수행, 동료감, 성생활, 자녀와의 관계등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종숙(1989), 최동숙(19

91)등의 여러 연구자들이 결혼 및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주부들은 가정생활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 3. 관련변인 고찰

#### 1) 객관적 자원

##### (1) 연 령

지금수(1992)는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의 점수가 높다고 하였으나, 오정옥(1986)은 40대의 주부가, 이명숙(1987)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Houseknecht와 Macke(1981)는 연령의 증가할수록 전문직 여성의 경력을 더 성공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전반적 결혼적응과 부부의 결속력, 애정표현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 (2) 교육수준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이정우, 1982; 박혜경, 199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주부의 가정생활만족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eck, 1983; Smith, Weeks, Wozniaks, Knaub, Little & Draughn, 1988).

##### (3) 자녀수

박혜경(1992)은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가정관리능력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나 지금수(1992)는 가족수가 6~7명인 경우에 평가적 관리행동이 가장 우세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정우와 오경희(1988)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Houseknecht와 Macke(1981)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애정표현에 대한 주부의 만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 (4) 직 업

임정빈(1988)은 취업주부보다 전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 점수가 더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Smith와 그의 동료들(1988)은 주부의 취업은 결혼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5) 소 득

이정우와 이정숙(1992)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오정옥

(1986)은 계획능력에 한해서만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Hayes와 Stinnett(1971), Berry와 Williams(1988)는 소득이 많을수록 주부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 2) 주관적 자원

##### (1) 자원적정인지도

자원은 개인이나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용한 물건, 물체, 현상으로서, 가정관리체계에서 주요한 투입의 요소이며 목표달성의 수단이 되고 모든 문제해결에 필요한 잠재력을 가진 요인이다(Deacon과 Firebaugh, 1988: 52). 이러한 자원은 특정한 요구충족의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은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자원보다 인지된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Rowland, Dodder와 Nickols, 1985: 218-219). 즉 목표성취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의 소유 그 자체보다는 사용가능한 자원의 적정성에 대한 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의 적정성 정도를 주부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나 하는 자원적정인지도는 가정관리체계에서의 주관적 자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에 이명숙(1987)은 주부의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Wilson과 Peterson(1988), 이정우와 김경숙(1993)은 자원 및 자원인지도가 높을수록 주부 및 가족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 (2) 생활정보활용도

정보란 가족과 환경이 서로의 변화를 자극하는 요소로서 가족원이 환경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를 말한다(Paolucci, Hall & Axinn, 1977: 19, 113). 일반적으로 가족원은 자신의 인식과 일치하는 정보를 택하게 되지만 환경에서 주어지는 정보의 양과, 인식되고 처리되는 방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복잡성을 띠게 된다(Klein & Hill, 1979: 538). 따라서 가족은 새로운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하는 인지적 영역이 필요하며(Melson, 1980: 67), 정보란 상징적인 세트내에서 의사소통, 의미, 설계하기와 같은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의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Black, 1971: 27).

이에 Rice와 Tucker(1986 : 172, 175)는 가족이 정보를 다루는 목적은 가정관리에서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있는 정보를 분류, 저장하는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과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인지하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주부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관적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정보활용도와 가정관리능력, 가정생활 만족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 (3) 의사소통도

의사소통은 자신의 표현이나 감정에 근거를 두고, 마음속에 있는 상황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사용된다(Deacon & Firebaugh, 1981 : 100). 의사소통은 가족체계내에서 거리감을 좁히고 친밀함을 유지시키며, 생활의 안정과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토록 하는 기능(Galvin & Brommel, 1982 : 12-21)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목표설정, 목표성취, 가족행동의 통합등 개인생활 및 대인관계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또한 의사소통은 가족원간의 갈등해결과 공동의미의 모색을 위하여, 그리고 이에 대한 기술이 없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피하게 해 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가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에서 인체의 혈액순환과 같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관리체계에서의 주요한 주관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이정우와 김경숙(1993)은 가족간의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의 만족(이정우와 김경숙, 1993)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4) 스트레스인지도

스트레스란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서 일어나는 유기체의 반응현상으로서, 개인과 환경사이의 불균형 및 부적합 상태, 스트레스가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한 긴장의 여분, 개인과 가족의 적응범위를 넘는 환경적 자극등으로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Ivanecvich & Matterson, 1980 : 4-5 ; Melson, 1980 : 256 ; McCubbin, 1980 : 857 ; McGrath, 1978 : 1352). 일

반적으로 주부는 기혼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기대와 요구, 그리고 전통적 여성역할의 평가절하에 따른 무가치와 비에감등으로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특히 취업주부는 직업과 역할과잉의 문제, 가족특성, 주체성과 같은 내적 긴장과 규범적, 직업적, 사회적 활동과 같은 외적 긴장의 요인들에 의하여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Coffey, 1985 : 28). 이처럼 주부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다양하지만 개인이나 가족에 따라서 그 인지정도가 다르게 조절되며, 관리행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정관리체계에서 스트레스인지도는 주관적 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정우와 오경희(1991)는 주부의 스트레스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낮다고 하였다. 그리고 Pittman과 Lloyd(1988)는 스트레스가 결혼의 질이나 부모만족, 생활만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 III.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투입요소인 객관적 및 주관적 자원이 과정요소인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투입요소인 객관적 및 주관적 자원이 산출요소인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과정요소인 가정관리능력이 산출요소인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투입, 과정, 산출요소간의 관계로서 취업주부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원과 가정관리능력, 가정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도구

#### 1) 주관적 자원

자원적정인지도는 Rowland와 동료들(1985), 이명숙(1987), 조영희(1991)의 연구를 기초로 예비조사를 거쳐 신뢰도가 높은 8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66이었다. 생활정보활용도는

오경희(1992)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14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87이었다. 의사소통도는 김은숙(1983), 김경아(1990)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9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80이었다. 스트레스인지도는 장병옥(1985), 고은숙(1992)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9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77이었다. 각 도구는 5점 likert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자원적정인지도, 생활정보활용도, 의사소통도, 스트레스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가정관리능력

酒井가 개발한 도구를 우리나라 가정생활에 알맞도록 일부 수정, 보완한 것으로(이정우, 1981), 가정관리행위 및 대상별로 구분지어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90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가정생활만족

Hayes와 Stunnett(1971), Roach, Frazier와 Bowden

(1981), 임정빈(1988), 최동숙(1991)의 연구를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 후 Varimax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하여 5점 likert방식의 7개 영역, 21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87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광주시 및 강릉시에 거주하며,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임의추출하였으며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직업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기재식 방법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조사시기는 1993년 3월 15~22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1993년 4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800부를 배부하여 85.3%인 682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618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표 1. 조사대상자의 객관적, 주관적 자원(투입요소)

객관적 자원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객관적 자원	연령	20대	26( 4.2)	교육수준	국졸
30대			239(38.7)	중졸		93(15.0)
40대			305(49.4)	고졸		211(34.1)
50대 이상			48( 7.8)	전문(초)대졸		58( 9.4)
계			618	대졸 이상		204(33.0)
자녀수		2명 이하	406(65.7)	계	618	
		3명	153(24.8)	직업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	201(33.0)
		4명 이상	59( 9.6)		사무직	97(15.7)
		계	618		판매직	154(24.9)
소득		130만원 미만	163(26.5)		서비스직	102(16.5)
		130-180만원	146(23.8)	생산관리직	48( 7.8)	
		180-230만원	152(24.6)	계	602	
	230만원 이상	156(25.2)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계	617				
주관적 자원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도의 점수범위		
	자원적정인지도	28.02	4.89	1-40점		
	생활정보활용도	49.59	8.20	1-70점		
	의사소통도	28.64	5.70	1-40점		
스트레스인지도	21.56	8.56	0-45점			

산술평균과 표준편차, 요인분석, Step-Wise 방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하였다.

### V. 연구결과 및 논의

#### 1. 투입, 과정, 산출요소의 일반적 경향

투입요소인 취업주부의 객관적 자원과 주관적 자원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이 중 주관적 자원의 경향을 살펴보면, 취업주부는 자원의 적정성에 대한 인지도와 각종 생활정보에 대한 활용도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도가 높으며,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비교적 적게 느끼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요소인 가정관리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그 결과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은 약간 높은 경향이었다. 대상별로는 인적자원보다 물적자원의 관리능력이 높았는데, 특히 금전에 대한 관리능력이 가장 높고, 지식 및 기능에 대한 관리능력이 가장 낮은 경향이었다. 행위별로는 통제능력이 가장 높고, 계획과 평가의 능력은 비교적 낮은 경향이었다. 이는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박혜경, 1992; 이정우와 김경숙, 199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산출요소인 가정생활만족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부모자녀관계, 결혼전반, 생활표준의 일치와 부부관계의 영역에서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임정빈, 1988)에서 나타난 전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보다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낸 것이며, 취업이 가정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최동숙(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 2. 투입요소가 과정요소에 미치는 영향

투입요소가 과정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표 3).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회귀분석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계수는 1.69~1.95의

분포를 보여 잔차간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객관적 자원은 대부분이 명목척도로 되어 있어 가변수화 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중 취업주부의 직업은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 사무직을 0으로,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관리직을 1로 처리하였다.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는 연령( $\beta$  .12)과 생활정보활용도( $\beta$  .26), 의사소통도( $\beta$  .25)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총분산의 17%를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정생활에서 가정관리를 익숙하고 능률적으로 하게 되며, 생활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가족간에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다는 이정

표 2. 조대상자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 (과정, 산출요소)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가정관리능력(100점 만점)	67.23	14.01	
가정관리능력	대	인애정(10점)	6.79	1.94	
		적기질(10점)	6.66	1.98	
		자지식및기능(10점)	5.87	2.05	
		원체력(10점)	6.76	1.87	
		관시간(10점)	6.80	1.90	
			리계 (50점 만점)	32.88	7.80
	상	물금전(10점)	7.24	1.83	
		적의복(10점)	6.78	1.93	
		자음식물(10점)	6.90	1.76	
		원주거(10점)	6.84	1.91	
관가정설비및공공시설(10점)		6.59	1.93		
		리계 (50점 만점)	34.35	7.26	
행위	계획(20점)	12.53	3.37		
	조정(20점)	12.71	3.76		
	통제(20점)	14.72	3.23		
	지도(20점)	14.03	3.54		
	평가(20점)	12.24	3.89		
		가정생활만족도(105점 만점)	74.61	.58	
가정생활만족	하위영역	결혼전반 (5 점)	3.79	.80	
		재정문제 (5 점)	3.21	.87	
		시대관계 (5 점)	3.41	.92	
		생활표준의일치(5점)	3.62	.72	
		부부관계 (5 점)	3.62	.72	
		부모자녀관계 (5점)	3.84	.74	
		여가및지역사회참여(5점)	3.11	.86	

표 3. 투입요소가 과정요소(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 능력	계 획		조 정		통 제		지 도		평 가		인적자원 관 리		물적자원 관 리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 령	2.36	.12	.38	.08		.43	.09	.51	.10	.62	.11	1.29	.11	1.26	.12	
교 육 수 준																
자 녀 수				.37	.09											
직 업 특 징												-1.18	-.08			
자 원 적 정																
인 지 도																
생 활 정 보																
활 용 도	.43	*.36	.08	*.20	.08	*.17	.06	*.16	.11	*.25	.11	*.24	.21	*.23	.22	*.25
의 사 소 통	.62	*.25	.15	*.23	.14	*.21	.10	*.18	.13	*.21	.10	*.15	.36	*.26	.27	*.22
스 트 레 스																
인 지 도																
상 수	21.88		3.18		5.09		8.11		3.74		2.16		9.28		13.46	
R	.17		.14		.10		.07		.14		.11		.17		.14	
F 값	41.88***		31.46***		22.00***		11.90***		32.67***		24.06***		30.92***		24.56***	
D - W 계 수	1.78		1.86		1.75		1.91		1.91		1.90		1.78		1.82	

b : 비표준화 계수, β : 표준화 계수 \*p<.05, \*\*p<.01, \*\*\*p<.001

표 4. 투입요소가 산출요소(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정생활 만 족 도	결 혼 전 반		재 정 문 제		시 대 관 계		생 활 표 준 의 일 치		부 부 관 계		부 모 자 녀 관 계		여 가 및 지 역 사 회 참 여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 령	- .95	-.05														
교 육 수 준																
자 녀 수																
직 업 특 징																
자 원 적 정																
인 지 도	.90	*.36	.14	*.22	.28	*.53	.10	*.18	.08	*.19	.07	*.12	.07	*.16	.16	*.45
생 활 정 보																
활 용 도																
의 사 소 통	1.07	*.50	.29	*.32	.08	*.17	.12	*.26	.14	*.37	.31	*.63	.11	*.28	.30	.10
스 트 레 스																
인 지 도	-.09	-.07														
상 수	19.33		2.99		1.18		3.39		1.59		.27		4.47		.75	
R	.65		.43		.42		.20		.43		.54		.25		.25	
F 값	225.95***		227.68***		107.24***		37.88***		88.89***		239.08***		40.87***		65.90***	
D - W 계 수	1.75		1.82		1.81		1.77		1.91		1.90		1.75		1.87	

b : 비표준화 계수, β : 표준화 계수 \*p<.05, \*\*p<.01, \*\*\*p<.001

우와 김경숙(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가정관리능력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취업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조절을 제외한 전 하위영역에 대한 능력이 높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조절능력이 높고, 직업이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관리직인 경우는 인적자원관리능력이 낮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물적자원관리능력이 낮다. 그리고 취업주부의 생활정보 활용도와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 전 과정에서의 능력이 높으며, 인적, 물적자원관리의 능력도 높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취업주부의 경우, 가정생활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잘 활용하여 가정생활에 직접 응용하며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잘 하여 가족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을 때, 가정관리의 과정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을 잘하게 되고 더불어 가족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 투입요소가 산출요소에 미치는 영향

투입요소가 산출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beta = .17$ )과 자원적정인지도( $\beta = .36$ ), 의사소통도( $\beta = .50$ ), 스트레스인지도( $\beta = .07$ )였으며, 이들은 총분산의 65%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취업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가정의 자원에 대한 적정성을 높게 인지하며,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인지 정도는 높아질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문직 주부의 경우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을 보다 더 잘하게 된다는 Houseknecht와 Macke(1981)의 연구와 반대의 결과이다. 그러나 가정생활만족도에 자원인지도(Wilson & Peterson, 1988)와 의사소통도(김은숙, 1981)가 긍정적 영향을, 스트레스인지도(이정우와 김경숙, 1993)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가정생활만족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취업주부의 객관적 자원 중에서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는 낮아지며, 직업이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관리직인 경우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낮지만 여가 및 지역사회참여의 만족도는 높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재정문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취업주부의 주관적 자원 중에서 자원적정인지도와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의 전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스트레스인지도가 높을수록 시대관계와 생활표준일치에 대한 만족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가 가정생활에서의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적정성인지도와 가족간의 의사소통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를 활용토록 하고, 매사에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지나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4. 과정요소가 산출요소에 미치는 영향

과정요소가 산출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가정관리능력은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 .32$ ), 이는 총분산의 10%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이 높을 때 가정생활만족도도 높다. 이는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정우와 김경숙, 1993)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관리능력은 주부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정생활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변인으로서 주부는 우선적으로 가정관리능력을 높일 수

표 5. 과정요소(가정관리능력)가 산출요소(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 정 생 활 만 족	
	b	$\beta$	b	$\beta$
가 정 관 리 능 력	.27	.32***		
하 위 인적자원관리영역			.36	.23***
계 획			.46	.13*
상 수	56.08		56.34	
R <sup>2</sup>	.10		.11	
F 값	67.88***		38.72***	
D - W 계 수	1.76		1.71	

b : 비표준화 계수,  $\beta$  : 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가정관리능력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인적자원관리의 능력과 계획능력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취업주부가 인적자원관리를 잘 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사용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울 때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이 높아진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을 보다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관리에서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매사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 행동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며,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이들에 대한 관리능력의 향상을 도모토록 해야 하겠다.

5. 투입, 과정, 산출요소간의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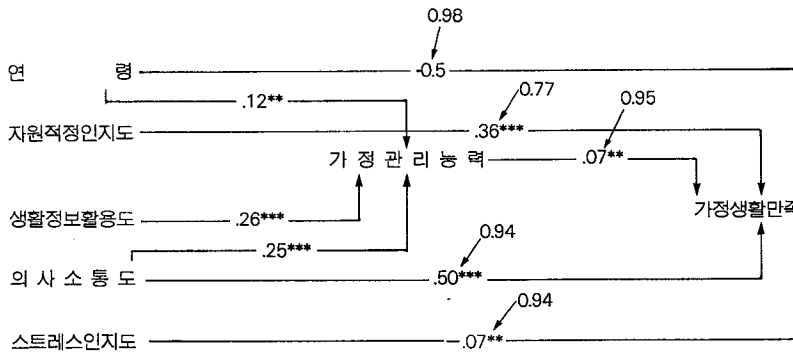
투입요소와 과정요소, 산출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과모형을 구성하였다. 즉 투입요소는 과정요소를 통하여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과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의 분석을 위하여 2단계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과정요소인 가정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는 연령과 생활정보활용도, 의사소통도였다. 즉 취업주부의 연령이 높고 생활정보활용도와 의사소통도가 높을 때 가정관리능력이 높다. 그리고 산출요소인 가정생활만족에는 연령, 자원적정인지도, 의사소통도, 스트레스인지도와 가정관리능력이 분산의 65%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취업주부의 연령과 스트레스인지도가 낮고 자원적정인지도와 의사소통도 그리고 가정관리능력이 높을 때 가정생활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인과모형이 구성되었다.

인과모형에 사용된 변인들의 구체적인 인과효과를 표 6과 같다. 즉 연령은 가정생활만족을 감소시키는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었으나 가정관리능력을 경유한 정적인 간접효과에 의해 전체적으로는 부적인 효과가 감소되었다. 즉 취업주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



외부화살표는 잔차효과를 나타내며,  $\sqrt{1-R^2}$  으로 계산됨

그림 1. 인과모형.

표 6. 모형의 인과효과

변인	총체적 인관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비인과적효과
연령	-0.18	-0.05	능력경유 0.01	-0.04	-0.14
자원적정인지도	.64	.36		.36	.28
생활정보활용도	.33		능력경유 0.02	.02	.31
의사소통도	.73	.50	능력경유 0.02	.52	.21
스트레스인지도	-0.34	-0.07		-0.07	-0.27
가정관리능력	.32	.07		.07	.21

\*총체적관계는 단순상관계수(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임

관리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정생활만족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 자원적정인지도는 가정생활만족에 정적인 직접효과만 있었으며, 생활정보활용도는 가정관리능력을 경유한 정적인 간접효과만 있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적정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이 높으며, 생활정보를 잘 활용할수록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가정생활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도는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동시에 가정관리능력을 경유한 정적인 간접효과로 인하여 정적인 전체효과가 증가되었다. 반면 스트레스인지도는 부적인 직접효과만 있어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인지도가 높을 때 가정생활만족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과정요소인 가정관리능력은 가정생활만족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었다. 즉 취업주부가 가정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 조정, 통제, 지도, 평가의 과정에 맞춰 능률적으로 관리를 잘 할수록 가정생활만족은 높아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투입요소의 각 변인들이 과정요소를 통하여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들 요소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 1) 취업주부의 주관적 자원인 자원적정인지도, 생활정보활용도 및 의사소통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스트레스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가정관리능력은 약간 높은 편이었고, 비교적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취업주부의 연령이 높고, 생활정보활용도와 의사소통도가 높을 때 가정관리능력이 높았다.
- 3) 취업주부의 연령이 낮고, 자원적정인지도와 의사소통도가 높고,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은 경우에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 4)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이 높을 때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 5)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인과모형에서 연령과 생활정보활용도, 의사소통도는 과정요소인 가정관리

능력을 경유한 인과모형을 이루었으며, 자원적정인지도와 스트레스인지도는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요소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체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투입요소인 취업주부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원은 과정요소인 가정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산출요소인 가정생활만족에도 투입요소와 과정요소는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으므로 투입요소가 과정요소를 경유하여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들 요소간의 인과관계는 체계론적 접근방법의 적용으로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체계론적 관점에 의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들간의 인과모형을 분석해 보았을 때, Heck(1983) 등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과정요소의 역할이 투입요소에 비하여 다소 빈약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올바른 가정관리를 함으로써 가정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많은 취업주부가 관리과정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또 한편으로는 가정관리체계에서 과정요소로서의 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척도들이 아직도 충분히 정교화되지 못하여 관리행동의 포괄적인 내용과 역할을 충분히 알아내어 측정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에 공통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관적 자원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주관적 또는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취업주부의 주관적 자원이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된 만큼 주부가 이들 자원을 개발하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은숙(198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의사소통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상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2) 박혜경(1992). 부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3) 오정옥(1986).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과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4) 이명숙(1987).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 및 자원인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5) 이정우(1980). 가정관리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6) \_\_\_\_\_(1981). 가정관리연구. 서울 : 수학사.
- 7) \_\_\_\_\_ · 김경숙(1993).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1(3), 29-46.
- 8) \_\_\_\_\_ · 오경희(1991).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제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18.
- 9) \_\_\_\_\_ · 이정숙(1992).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0(3), 241-256.
- 10) 임정빈(1987).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11) 장명옥(1976). 우리나라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의 실태조사와 그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 가정대학 논문집(1), 21-53.
- 12) 지금수(1992).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 능력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3) 최동숙(1991).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4) 酒井ノ子(1969). 家庭管理能力? ? 研究. 東京 : 慎書店.
- 15) Black K.D.(1971). A System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the Marital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16) Burr W.R.(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 29-42.
- 17) Coffey K.R.(1985). Solving Family and Work Role Problems : An Academic Department Case Study. *J. of Home Economics* 77(1), 28-33.
- 18) Deacon R. & Firebaugh F.M.(1981,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 Bacon, Inc..
- 19) Galvin K.M. & Brommel B.J.(1982).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Illinois : Scott Foresman and Company.
- 20)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N.J. : Prentice-Hall Inc..
- 21) Hayes M.P. & Stinnett N.(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 and Wives. *J. of Home Economics*(December) 63(9), 669-674.
- 22) Houseknecht S.K. & Macke A.S.(1981).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ust), 651-661.
- 23) Melson G.F.(1980). *Family and Environment : An Ecosystem Perspective*, Minnesota : Burgess Publishing Company.
- 24) Nickell P.L., Rice A.S. & Tucker S.P.(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ed., N.Y. : John Wiley & Sons, Inc..
- 25) Rice A.S. & Tucker S.P.(1986). *Family Life Management*, N.Y.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26) Rowland V.T., Dodder R.A. & Nickols S.Y.(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 14(2).
- 27) Smith C.W., Weeks O., Wozniaks P., Knaub P.K., Little L.F. & Draughn P.S.(1988). Marital Adjustment in Farm Coupl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Home Economics Research J.* 17(1), 77-85.
- 28) Wilson S.M. & Peterson G.W.(1988). Life Satisfaction Among Young Adult From Rural Families. *Family Relations* 37, 84-91.